

‘자녀 교육비 5% 할인’ 엄마들을 위해 태어났다

여성 특화 ‘삼성카드5 V2’ 인기

쇼핑·병원 등 이용액 1% 포인트 적립
커피·영화·위터파크 할인 등 매력적

내 아이와 가족을 위한 혜택은 물론이고 나 자신을 위한 혜택까지 풍성한 ‘여성특화 서비스카드’가 화제다.

주인공은 삼성카드가 선보인 ‘삼성카드5 V2’. 기존 ‘삼성카드5’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쇼핑과 교육 업종에 특화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카드5가 포인트 적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삼성카드5 V2는 적립과 할인을 골고루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또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피와 영화 할인 등 특화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실속 있는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쇼핑과 교육에 특화

삼성카드5 V2는 실속 있는 쇼핑과 자녀교육 등에 관심이 많은 여성 회원들의 특성을 고려했다. 먼저 백화점과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병원 및 해외사용 금액의 1%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학원과 서점, 학습지, 문화센터 업종에서 5% 결제일 할인(3만원 한도 내) 혜택도 준다. 적립된 포인트는 전국 6만여 보너스클럽(포인트 사용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쇼핑 및 병원 업종 포인트의 경우 적립 한도

제한이 없으며, 교육업종 할인은 3만원 이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결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 행사도 진행 중이다. 그 외 가맹점에서든 전월 이용금액과 적립한도에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0.5%를 포인트로 기본 적립 받을 수 있다.

●문화생활 지원도 막막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자녀 간식 구매 등으로 자주 이용하는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이용 시 10% 결제일 할인을 해준다.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피전문점에서도 10% 결제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CGV 온라인 예매

시에는 3000원 결제일 할인을, 현장 결제를 하면 3000원 즉시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놀이공원이나 위터파크는 최대 50% 할인혜택을 준다. 키자니아 등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는 이용금액 2만원 이상 시에는 5000원, 4만원 이상일 때는 1만원의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S-oil은 리터당 40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가족과 자녀 중심의 소비를 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쇼핑 및 교육업종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카드5 V2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고객의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숫자카드를 선보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한국에서 11번째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 일원의 시원스런 야경.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남한산성 “야경도 기막히네”

도시의 야경 명소 8선

서문성곽 위가 야경감상 최고 포인트

서울 종로구 낙산길, 일몰·야경 명소
경주역사유적지구·대구 앞산도 일품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 뜨거운 햇살의 한낮을 피해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기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낮에 느낄 수 없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야간투어는 여름여행에 서만 즐길 수 있는 매력이다. 매일 한국의 여행명소를 추천하는 한국관광공사도 7월 테마를 ‘도시의 야경’으로 정했다. 세계문화유산부터 밤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도심 야경까지 여덟 곳의 야경 명소는 어디일까.

김재범 전문가 oldfield@donga.com @kobaukid

●세계문화유산 성곽서 야경에 취하다, 남한산성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은 성곽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야경이 일품이다. 야경 감상 최고 포인트는 서문 성곽 위다. 서문까지 이어지는 탐방 코스는 평이해 가족 단위 여행객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도보로 즐기는 신라의 달밤, 경주역사유적지구

경주 야경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첨성대, 월정교, 동궁과 월지(옛 안압지)다. 일몰 후 경관 조명이 들어오는 오후 8시부터 세 곳 모두 걸어서 둘러볼 수 있다. 야경 여행 후 보문관광단지의 마사지 숲에서 피로를 풀거나, 동대사거리 막창골목에서 출출한 속을 달랠다.

●600년 전 한양도성을 걷다, 서울시 종로구 낙산길

북악산(백악)에서 인왕산까지 18.6km에 달하는 한양도성은 서울 도심 야경을 볼 수

있는 명소가 많다. 그중 흥인지문에서 해화문으로 이어지는 낙산 구간은 남녀노소 쉽게 갈 수 있고 낙산공원은 북악산과 북한산 능선의 일몰과 서울 야경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

●마치 야간 비행에 나선 비행사가 된 기분, 대구 앞산

대구 앞산전망대에서는 도시 전체가 발아래 펼쳐지는 장관을 만날 수 있다. 앞산케이블카를 타면 전망대까지 쉽게 오를 수 있다. 이월드의 83타워도 시내 야경 명소다.

●도시·섬·항구가 어우러진 바다의 야경, 창원 시립마산문신미술관

시립마산문신미술관과 추산근린공원은 창원관광의 포인트다. 창동예술촌에는 1970~1980년대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골목 풍경이 있고, 돌섬해상유원지에는 한적한 숲길 산책로가 있다.

●불빛으로 피어나는 삶의 근기, 목포 유달산

유달산에서 바라보는 죽교동 야경, 유달산 마당바위에서 바라보는 고하도와 목포대교 불빛, 유달산 천자총통 발포체험장에서 올려다보는 유선각 야경, ‘춤추는 바다분수’가 야경 투어의 핵심 코스다.

●밤의 열기 가득한 도시의 야경, 대전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야간 명소로 자리 잡은 스카이라드와 국내 최대 규모인 아케이드형 LED 영상시설이 눈길을 끈다. 보문산전망대와 대동하늘공원은 원거리에서 바라본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탐험 청주시의 저녁 풍경 전망대, 수암굴 전망대

‘가인과 아벨’, ‘제빵왕 김탁구’, ‘영광의 재인’ 등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수암굴에는 청주 시가지의 일몰과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가 새로운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실내악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서브원 곤지암리조트의 여름 축제 ‘팜페스트 서머 페스티벌’.

사진제공 | 서브원 곤지암리조트

한 여름밤 콘서트…무더위 탈출!

곤지암리조트 ‘팜페스트 서머 페스티벌’ 개최

자연 속 리조트에서 즐기는 여름밤의 콘서트는 어떤 느낌일까. 서브원 곤지암리조트는 다양한 음악과 공연으로 무더위를 식혀줄 ‘팜페스트 서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7월5일부터 8월3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공연을 하고, 휴가 피크시즌인 7월25일부터 8월15일까지는 매일 밤 진행을 한다.

7월5일과 25일, 28일, 30일에는 여성보컬 ‘이즈’의 라이브 무대가 열리고, 7월19일과 29일에는 현악4중주단 ‘로시오 델 솔’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밖에 마술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멀린 어워드를 수상한 마술사 홍준표의 마술쇼, 비눗방울과 LED 조명이 어우러진 버블 매직쇼도 페스티벌 기간 동안 공연한다. 또 페스티벌 기간 동안 빛의 광장 일대에서는 친환경 화장품과 완구, 소품 등을 저렴하고 구매할 수 있다.

김재범 전문가



티몬 ‘항공권 예약’ 이젠 모바일로!

티켓몬스터 앱 내 항공권 예약 서비스 오픈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는 해외 할인항공권을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실시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사진)를 30일 오픈했다.

기존 PC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했던 항공권 예약 서비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구현했다. 이용자는 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 기존 티몬 앱 여행 탭에서 선택한 일정에 따른 요금 확인과 예약이 가능하다. 현재 이번 주말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항공권을 검색하면 제주항공 최저가 3만8000원 티켓부터 총 7개 항공사 105개의 예약 가능한 티켓이 검색된다. 특히 주요 도시 별 최저가 할인항공권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한편, 티몬은 1월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근거리 도시탐을 오픈하고 동남아, 중국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개별 여행을 할 때도 숙박과 교통, 입장권을 모두 티몬에서 한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김영근 기자

뉴 푸조 308 ‘수입 해치백’ 새 강자 등장

6년만에 풀체인지…첨단 편의사양 가득
비행기 조종석 닮은 ‘아이-콕핏’ 돋보여

뛰어난 연비와 공간 활용성, 콤팩트한 차체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수입 해치백 시장에 푸조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30일 출시된 ‘뉴 푸조 308(사진)’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내 해치백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폭스바겐 골프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2014 올해의 차’에 선정될 만큼 해외에서는 이미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골프와 비교해 뉴 푸조 308이 지니는 최대 장점은 풍부한 편의 사양이다. 6년 만에 선보인 풀체인지 모델인 만큼 실내외에 다양한 첨단 편의 사양을 추가했다. 실내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비행기 조종석을 테마로 한 아이-콕핏(i-Cockpit)이다. 콤팩트한 사이즈의 스티어링휠(351mm×329mm) 조작성을 높였고, 운전자 눈높이에 맞춰 설계한 헤드업



터치스크린을 통해 각종 멀티미디어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 레이더를 이용해 앞차와의 차량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한 차량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전자식 핸드브레이크, 대형 컬러 스크린을 이용한 후방 카메라, 스마트키 시스템 등 눈에 띄는 옵션이다.

기존 모델 대비 무게를 140kg 감량했고, 전폭과 휠베이스는 10mm 넓혀 실내 공간을 더 넓게 확보했다. 최대 적재 용량은 1309리터다. 정차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고 움직이면 켜지는 스톱 앤 스타트 시스템도 갖췄다. 복합연비는 14.6km/L(고속 16.4km/L, 도심 13.4 km/L)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인스트루먼트패널로 도로 정보를 편리하게 읽을 수 있다. 또한 9.7인치 대형

6000억원 이상 누적 적자…도 재정 부담
대회 포기 땀 1억달러 이상 위약금 폭탄

F1코리아그랑프리 지속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선 6기 전남도지사 직무인수위원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F1코리아그랑프리의 지속 개최, 대회 중단, 2016년 개최 등 3개 안을 검토했으며, 지속 개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고 밝혔다. F1코리아그랑프리는 2010년부터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지난해까지 4년간 개최됐으나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돼 올해 대회가 무산됐다. 실질적으로 2015년 대회 개최 역시 불가능한 처지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주최측인 FOM(Formula One Management)과의 현재 계약 관계와 계약 파기시 소송 등을 고려해 2016년 대회 개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후 방향

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이처럼 조건부 개최안을 내놨지만 현재까지 6000억원 이상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F1코리아그랑프리를 지속 개최하는 것은 도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상의 뚜렷한 해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F1코리아그랑프리의 지속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회 개최 중단 역시 위험 부담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FOM과의 계약기간(총 7년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대회를 중단하게 되면 위약금과 소송비용을 합쳐 최소 4000만달러에서 최대 1억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가 F1코리아그랑프리의 지속 개최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FOM과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우리 쪽에서 먼저 대회 개최를 포기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협상에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성열 기자